

# 현실 넘어 꿈꾸고, 직업 찾은 청년들을 만나다

청년인문공동체 '예기치 않은 기쁨'의 '이상한 직업 소개소'

### 책·여행·예술·환경 등서 찾은 새로운 직업 소개 8월 주제 '집'...27일 게스트하우스 페드로서 행사

광주 동명동에 자리한 '예기치 않은 기쁨'은 지난 2011년 꾸러진 청년인문공동체다. 지역 문화예술종사자들이 '공부해서 남주지'는 모토로 모여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던 게 출발이었다. 이후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면서 공부는 계속됐고, 지금은 6기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회원들은 인문학을 바탕으로 나를 둘러싼 '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책을 읽어오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삶에서 풀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들에게 기회가 왔다. 광주시와 광주청년센터 숲이 함께하는 청년일자리발굴사업에 참여, '이상한 직업 소개소'를 시작했다. 이름에는 일과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이상'(異常·스스로 달리하다)과 '이상(理想·현실을 넘어 꿈을 꾸다)'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담았다.

'이상한 직업 소개소'는 일과 삶을 고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현실을 넘어 꿈꾸며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마당이다.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다보니 진로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것, 현실을 넘어서는 것, 남이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꿈꾸는 이들이 많았죠. 기존의 직장이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 싶었고 다양한 주제를 찾아 지역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는 젊은



화가 신양호씨가 제작해준 이상한 직업소개소 팸플.

이들을 찾았습니다."

연구소 윤샷별 소장은 "프로그램은 주최측과 강연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강연자들끼리 미리 모임을 갖고 참가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한다"

고 말했다.

첫번째 선택한 '이상한 직업'은 '책'을 선택한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독립출판 작가 '오월의 방', 전국 최연소 1인 출판사인 '연지 출판사' 대표, 작은 독립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트 라이프' 서점 주인장, 매거진 제작부터 책방 운영까지 하고 있는 전주의 '에이커(AK-ER)' 대표 등이 청년들과 만났다.

책을 좋아해 책을 읽고, 만들고, 쓰고 판매하는 청년들은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과 운영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상한 직업연구소'는 매달 집, 예술,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광주 동명동 '예기치 않은 기쁨'에서 '책'을 주제로 열렸던 행사 모습.

두번째 행사인 8월의 주제는 '이상한 직업으로 '집'을 선택한 청년들'이다.

오는 27일 오후 4시 게스트 하우스인 페드로 하우스(광주시 서구 쌍촌동) 1층 카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주의 게스트 하우스 '비빔', 외국인 전용 게스트 하우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페드로 하우스, 집을 살리는 페가살리기 협동조합 'JEJU zip'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 송정동 셰어하우스 '이공' 운영자 이세형씨도 참석한다. 이 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 아파트를 무상으로 내놓은 김현승씨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면서 함께 마을공동체를 고민해나갈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동네청년'들이 모여 자재비를 마련하고 직접 공사를 진행한 후 셰어하우스를 오픈했다.

오는 9월에는 '예술'을 소재로 한 이상한

직업을 찾고 있다. 최근에 광주에 아트마켓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이들도 늘어난 것에 주목해 '예술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월과 11월의 주제는 각각 '여행'과 '환경'이다.

"첫번째 주제도 기존 서점의 틀을 깨고 남다른 시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경' 역시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 대신 뭔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면 행복하죠. 많은 이들이 현실을 넘어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윤샷별 소장은 앞으로도 '이상한 직업 소개소'에서 '이상한 직업'들을 많이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행사. 문의 062-462-0116. /김미은기자 mekim@r



박진현의 문화카데

"아트비젤 홍콩은 도시 전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도해(多島海) 같다. 신진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만 행사 기간에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전시회들을 둘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큐레이터이자 '세계 미술계 파워 100인'(영국 미술잡지 '아트리뷰' 선정) 중 1위로 꼽히는 스위스 출신의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48)가 '2016 아트비젤 홍콩'을 주관하고 내린 평가다.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등이 열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아트씬(art scene) 가운데 홍콩만큼 역동적인 도시도 없다는

국제예술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땅속미술관'이라는 명성 때문인지 지중(地中)미술관 입구에는 수백여 명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술관 측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1일 평균 약 10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지만 '그날'만큼은 5000여 명으로 늘었다. 평소에 비해 3~4배 정도 늘어난 관람객들을 되돌려 보낼 수 없어서였다.

당시 관람객들이 대거 밀려든 이유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2010' 때문이다. '버려진 섬을 예술의 낙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세토우치 예술제가 약 100일동안 세토나이

## '미술의 계절' 즐겁지 아니한가!

개기다.

얼마 전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문득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2015 아트비젤 홍콩'(이하 홍콩비젤)이 떠올랐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만큼 많은 미술도시를 다녀 보지 못했지만 기자의 눈에 비친 홍콩비젤은 기대이상이었다. 아니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겠다. 행사장인 홍콩컨벤션 센터 주변에는 'Art Basel Hongkong' 로고가 선명한 수십 여대의 셔틀버스가 몰려들었고 매표소 입구에는 입장권을 끊기 위해 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문객들이 줄지어 있었다.

1시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입장한 전시장은 제대로 관람하기가 힘들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근래 국내 아트페어나 비엔날레에서 보기 힘든 인파였다. 어쩌나 부러운지 이들 가운데 10%만이라도 '아트광주'나 광주비엔날레에 옮겨놓으면 좋겠다. 라는 영똥한 상상도 했었다.

6년 전 일본 나오히라 세토우치

카이의 나오시마, 데시마, 메기치마, 이누지마 등 7개 섬과 다카마쓰항 주변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토우치 예술제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축제기간 동안 7개 섬의 주민들과 작가들은 마을 곳곳에 작품들을 함께 만들고 설치한다. 인근의 오카야마현과 가가와현의 미술관, 호텔, 식당, 도서관 등 대중시설에도 지역작가들과 학생들의 작품이 내걸린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광주에서도 24일 '아트광주 2016'(24~28일)을 시작으로 '2016 광주비엔날레'(9월1일~11월6일)가 개막하는 등 본격적인 '미술의 계절'이 도래한다. 특히 올해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의재미술관 등 도시 곳곳에서 펼쳐져 마음만 먹으면 미술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미술축제를 '우리 동네'에서 즐기는 것, 쉽게 누릴 수 없는 축복이자 선물이다.

<편보기자 김미은>

## 전남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최우수

### 전국 16개 문화재단 평가 4개 전부분 최고등급 광주문화재단은 보통 판정

전남문화관광재단이 2015 지역문화예술교육 평가에서 전국 16개 문화재단 가운데 유일하게 전 부분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전국 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지역문화예술교육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

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교육지원센터 자체운영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협력체계·가치확산, 사업운영·지역센터 운영역량 등 모두 4개 부문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은 지난 2011년 종합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었다.

광주문화재단은 협력체계·가치확산, 지역문화센터 운영역량에서 '미흡' 판정을, 나머지 2개 부문에서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광주는 지난 2011년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한 단계 내려앉았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두드러진 평가를

받은 것은 차별화한 특화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우수사례로 꼽힌 '국악반주교 제작사업'은 교가를 국악으로 편곡한 반주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악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또 지역특성화 사업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확대 실시,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교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비 교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선도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 6월 문화예술지원사업(2015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 체험 놀이터' 새단장

국립나주박물관이 온가족이 참여해 각종 역사 체험과 놀이,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놀이터'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고고학자료실을 개편한 '어린이 체험 놀이터'는 친근한 색채와 안전한 바닥재를 사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조성했다.

어린이들은 '짐싸기 게임', '선비 옷 입기 체험' 등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금강산을 여행하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나만의 금동관 만들기'와 '문화재 피클 만들기'에서는 마한(馬韓)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1-330-78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 시설 대관

국립광주박물관이 전시관 1층 홀(392㎡)과 교육관 대강당(440㎡) 등 시설 대관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박물관은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대관을 하고 있다.

전시관 1층 홀은 졸업작품전, 어린이 미술전 등 전시회 위주로, 대강당

은 세미나, 교육연수, 웅변·발표회 등을 위주로 운영한다. 앞으로 정원까지 대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므로 개별 문의는 제외된다.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 대관신청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2-570-70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